

한국불교 미래는 교구본사 활성화에

불교미래사회연구 '조계종 교구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발표

조계종 교구본사제는 일본강점기 31본산제에서 유래했다. 해방 후 31본산제가 각 교무원 제도로 바뀌었고, 1962년 통합종단 발족 이후에는 노년 교구제를 대신해 현행 본사제가 이어져 왔다.

반면에 국가 행정구역은 인구밀집 정도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돼 왔다. 대구시의 경우 1948년 당시 81개 동이 현재는 8개 구·군 3읍·6면·134개 동으로 나뉘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교구본사제가 교구 자치 및 종단 대의제를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 등에 의한 사회변화를 따르지 못해 지역 곳곳에서 포교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이하 연구소)는 1월 26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관에서 '조계종 교구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금호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구소는 "조계종은 1994년 종단개혁 이후 교구자치제를 실시하는 등 제도개혁과 종무행정 변화를 추진해왔다"며 "종단 정책이 수행 포교 교육 문화 등으로 확산되는 지금, 교구본사의 역할 등에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의 미래가 교구본사 활성화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교구본사 활성화의 방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조계종 교구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현행교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해 교구활성화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안으로 △일정 규모의 말사를 보유한 본사의 경우 분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교구본구제'의 도입과 △교구와 행정구역의 일치 △인적·강화 지역 등 광역시·도급 이상 지역의 교구 신설 △선학원과 대각회의 특별교구 지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연구소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의 불교인구수를 비롯해 종교시설수(사찰수)도 이웃종교에 비해 약세였다"면서 "대도시 등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종단 차원의 효과적인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서울 강남·서초구 등 주요 부의 성장과 도시화가 가속된 인구집중 지역에서 불교가 약세였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국회 등의 의원, 기업체 고위임직원 및 전문

직 직군의 불교 약세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교구제 강화를 위해서는 교구중회 활성화와 함께 교구 주요요역의 논의 구조를 확립하고 교구와 행정구역의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 연구소는 "도심포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교 활성화 방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신도시 중심의 도심거점 사찰 육성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종단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소가 제안한 교구본사제 개선은 교구본사 주지사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님 스님은 "한 지역을 관장하는 교구는 그 역할도 시대변화에 흐름을 같이 해야한다"면서 "한국 불교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개별 교구 특성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법안 스님은 "교구 대중의 공의 속에 불사를 추진하면 본·말사 관계는 물론 불사 추진이 원만한 것을 직접 경험했다"며 연구소가 제시한 본말사간 네트워크 강화 제안에 동의했다.

한편, 연구소의 교구본사제 개선을 골자로 한 교구 활성화 방안이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은 신중하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총무원 사찰교무팀 박종학 팀장은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추후에 논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공론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서는 지역거점 사찰적인 교구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은 누차 이어져왔다. 하지만 교구본사의 변화를 구체화해 제시한 것은 이번 발표가 처음이다.

"조계종 25개 교구본사가 변화해야 불교가 살아난다"는 대중적 공의가 제2·3교구본사제 활성화 방안과 직접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박선주 기자

종단중점 사업 통해 위상 정립

태고종, 제도개혁 통해 체질 개선... 천태종, 10선 실천운동

"3월 11일 영산재 대법회를 계기로 종단 위상을 높이고 제도개혁을 통해 체질 개선을..."

"상월 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10선 실천운동으로 종도 일체가 하나로..."

태고종과 천태종이 27일과 25일 각각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종단 중점사업을 밝혔다.

취임 후 첫 새해를 맞은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1월 27일 서울 한국불교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영산재 대법회 등 문화사업 확대 △종단 제도개혁 통한 체질개선 △해외구호 복지사업 등 종단 사회적 역할 증대 등 주요 과제를 밝혔다. 특히 3월 11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봉행되는 '2010 영산재' 대법회에는 전국 3200여개 사찰과 1만5000여 종도들이 참여해 종단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봉원사에 상설공인관과 영산재의 거목인 태고종 원로 만봉·

송암 스님 박물관 건립도 추진된다. 또 종조 선양사업과 연계해 태고보우국사 다례일부터 3~7일간 학술세미나, 법고경연, 시서화 공모전 등이 열린다. 종단 내부적으로는 종단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종헌종법과 종단 조직기구를 정비할 계획이다.



인공 스님 (왼쪽) 정산 스님 (오른쪽)

인공 스님은 "올해는 종단 제도 개혁과 교육제도 개선, 문화사업 등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불자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이에 앞선 25일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2011년 천태종 조 상월원각조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10선 실천운동'을 중점 사업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천태종이 발표한 주요과제는 △총본산 구인사 성역화 불사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사업 △구인사 건립 65주년 행사 △심심실천운동 △전 종도의 포교사업 △1문화재 1자킴이 운동전개 △불교문화 전승과 보존사업 △남북 문화교류사업 △종단포교의 국제화 △사회복지사업 확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적극실시 △환경운동 본격화 등이다.

정산 스님은 "불교는 수행이 중심으로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종단에서 뒷받침하며 어렵고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포교와 복지에도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하심으로 국민 뜻 경청할 터"

청불회 박재완 회장 취임법회... 지승 스님 "불교부흥 앞장서 달라"

"백척간두에 있는 두려움을 일시에 떨칠 수 있는 지혜와 따뜻한 자비심을 갖춰 대통령 내외부와 청와대 불자들의 일신건강, 일심정정으로 가족, 사회의 안녕을 발원합니다."

제12대 청와대불자회 박재완 회장(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하 청불회) 취임법회가 1월 29일 1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불교계 정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취임법회는 청와대 불자회장 회원 및 내·외빈 헌화, 인사말, 강운구 前 청와대불자회 공로패 수여, 김의정 중앙신도회장 축사, 총무원장 스님 법어,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지승 스님은 법어에서 "동국대 약학대학 선정을 통한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청와대불자회, 공무원불자연합회, 중앙신도회가 힘을 모아 로스쿨 탈락과 같은 상처를 다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상징이자 권위인 대통령과



제12대 청불회 박재완 회장 취임식이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오른쪽부터 중앙회 김의정 회장, 제11대 청불회 강운구 회장, 지승 스님, 정산 스님, 혜정 정사.

국민을 보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서로 뜻을 모아 나라의 발전과 불교부흥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재완 회장은 "청불회 회원들은 조심스럽고 어려운 소임을 맡은 만큼 일거수일투족에는 이목이 집중돼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다"며 "늘 마음을 열어 하심의 마음으로 국민의 뜻을 경청해 정책에 반

영할 수 있도록 참회와 정진의 자세로 공무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지난해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융성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보살의 자세로 정권과의 갈등, 세계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축비와 묵락

종단은 신도 '니즈' 부터 파악해라

성도절(成道節)인 1월 22일, 월야 용맹정진 취재를 위해 전국 교구본사를 비롯한 주요사찰, 신도단체에 전화를 걸었다. "월야정진을 하기는 하지만 몇 사람 하지 않는다" "스님이 따로 지도해 주지는 않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 자유롭게 한다" "매년 참가하는 신도수가 줄어든다"는 대답뿐이었다. 어렵게 물어 수월 응주사를 찾아갔다. 그나마 찾은 응주사도 지난해 성도절에 비해 행사참여 신도수가 반 이상이 줄어 주지사님

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일일까?

최근 조계사 천도제가 교계 언론과 일간지로부터 비판 받으며 도마 위에 올랐다. 출·재가가 제각기 천도제에 대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혹은 타성에 젖은 채 천도제를 봉행하고 있다. 수백 수천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한 천도제는 상업적이라며 손가락질 받으며 미신적인 행위로만 치부되고 있다. 이런 천도제는 불자·비불자를 떠나

필요하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작금의 천도제를 무조건 미신이라고 폄하하며 상업성에 찌든 그릇된 불교의 산물이라 손가락질하는 비아냥도 자제해야 하지만, 어느 스님의 항변처럼 "신도들이 천도제를 찾기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도 말자.

천도제 찬반논란에 대한 해결은 종단, 사찰, 불교학자 등의 대중적 공의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

이상은언 기자 un82@buddhapia.com



모델 : 前 세계 "미세스킨". (촬영 : 방필석 법사)

★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니 ★

작명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자식이 효도하면 아버지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썩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1년 작명 국가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 738-5577, 739-8259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역)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필석법사

주역 개인지도

운명을 바꾸는 아호, 개명

방필석 대외활동

-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 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 20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승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耕當問奴(경당문노)라 농사일은 마땅히 농부에게 물어보고 작명은 마땅히 작명가에게 물어보고 일이 잘 안풀릴때 개명 하십시오. 그래서 옛부터 작명을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是 必無濟人之이요
-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改名은 必無改名之時라